

금 가격, 다시 반등하나... 온스당 4000달러대 회복

미·중 정상회담 후 안전자산 선호 늘어 투자매력 유효, 중장기 상승지속 전망

금등세를 이어가다 최근 급락세로 전환했던 금 가격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콰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0.06% 내린 온스당 401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 시세는 올해 10월 20일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359.4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6거래일 만인 28 일에는 400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현재 소폭 반등해 401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금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되 살아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옥지회 삼성증권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당장의 파국은 피했으나,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반도체 같은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어 낙관은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자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달 29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과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반등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까닭이다. 당시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0.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 후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투자처로서 금의 매력 여전히 유효해 중장기적 상승 추세는 변함없다고 진단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에 금 가격이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언급에도 금리인하 사이클이 내년 초반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부양정책을 위해 초장기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과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에셋·한투, IMA 지정되나 당국, 이달 사업자 선정 예고

금융당국이 빠르면 이달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심사를 진행해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로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종투사 지정,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증권·하나증권이 가장 빠른 절차를 밟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마쳤다. 반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심사가 더딘 상태다.

업계에서는 '거점 점포' 검사 결과가 남은 삼성증권과 이화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IMA·발행어음 종투사 지정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종투사 지정은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내부 통제와 무리한 투자, 과도한 광고 등은 엄격히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과 지파운데이션이 함께하는 꿈·희망 물품전달식



한투증권, 강원 지역 아동센터 후원 한국투자증권이 강원 지역 아동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했다. 오석진 한투증권 홍보실장(왼쪽)과 정지민 지파운데이션 대외협력팀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꿈·희망 물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코스피 4100 돌파에도... 웃지 못하는 건설주

침체 장기화·실적악화에 주가 부진

코스피가 사상 처음 4100선을 넘었지만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가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7만3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올해 고점(8만5100원) 대비 1만4800원 하락했다. 같은 날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종가도 각각 4만2700원과 1만9280원으로 올해 고점(5만9700원, 2만7850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6월 2만4850원을 기록했던 GS건설 주가는 1만8690원에 머물고 있으며, 대우건설도 3750원으로 올해 고점(4805원) 대비 낮은 상태다.

이처럼 건설주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

난 몇 년 간 금리 부담을 비롯해 원자재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하락은 실적외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의 우발 채무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 주도 하에 부실 PF 정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업황 견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주도 공공 발주 확대가 긍정적 요소지만, 실적외 인식되기 위해선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공공분야 외에도 민간 주택, 오피스·물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가 고르게 이뤄져야 업황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에서 일부 대형사가 원가율을 개선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실적시즌 순환매 장세 전망”

[주간중시점] 코스피, 3900-4100P 美 물가·고용지표·AI주 실적 주목

이번 주(3-7일) 국내 증시는 41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3분기 실적시즌에 맞춰 기대와 실적사이 키맞추기 과정에서 순환매가 강화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900-4100포인트로 제시했다.

지난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2%(165.91포인트) 오른 410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 4000포인트를 넘어선지 4거래일만에 4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의 강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10만전자'를 넘어서며 일주일간 8% 넘게 오르며 10만7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9.6% 오르며 55만90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는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두 기업의 역대급 실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지속 중"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정상회담, 반도체, 빅테크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AI 산업의 모멘텀 또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증시는 오는 12월 미국 금리 인

하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 결과와 팔란티어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AMD 등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 파월 의장이 12월 전까지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오는 4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중 물가지표와 오는 5일 발표될 주간 고용 속보치를 시장이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팔란티어와 AMD, 쉘컴 등의 실적에 따라 AI 시장의 버블 우려를 불식시킬지도 주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풀림 완화와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12배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대비 절대 수준은 높지 않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 비율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열해소 국면에서 숨고르기 및 기간조정 속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라며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인 디스플레이, 소매, 유통, 필수소비재, 은행 업종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힘센충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